

베일리의 價値論理에 대한 考察

권 영 경

사무엘 베일리는 상품가치의 측정문제를 實體主義的 측면에서만 고려함으로써 가치척도로서의 화폐의 역할을 무시하며 불변의 가치척도라는 관념적인 개념을 주장했던 리카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形態主義的 관점에서 가치문제를 고찰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하여 그의 가치논리는 비록 극단적인 명목주의적 논리로 경도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리카도 가치논리에 대한 반증의 논리로서 맑스로 하여금 고전학파 가치론으로부터 극복하는데 필요한 착상을 제공해 주는 한 계기가 된다. 즉, 고전학파 정치경제학으로부터 맑스정치경제학으로 전환되는 학설사적 발전과정의 한 단계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베일리의 가치논리는 J. S. 밀이 생산비론을 정립하는데 주요 영향을 미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마살리안적 이론형성의 한 구성요소가 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전자의 측면에서 베일리의 가치논리를 분석해 본다.

I. 서 론

사무엘 베일리(Samuel Bailey, 1791~1870)는 영국 고전학파 경제학의 발전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시되어 온 경제학자이다. 그러나 그는 1831년 토렌스가 정치경제학클럽에서 “리카도의 가치론은 베일리의 가치논리에 의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불변의 가치척도 문제를 둘러싼 리카도 가치론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함으로써 그 당시 가치론 논의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리카도의 투하노동가치론을 비판하는 가운데 가치개념의 본질, 가치의 척도, 가치의 성립원인 문제들을 古典派的 思考體系(리카도의 가치체계)와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제기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베일리는 그 당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가치결정논리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 즉 시장현상에서 직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격결정현상 및 운동현상보다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유한 가치실체 및 심층의 운동논리들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는 절대주의 내지는 실체주의적 관점에 반대하여 명목주의, 형태주의 및 상대주의의 관점에 따른 가치논리를 주장했던 것이다.

리카도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현실세계의 사물은 유일한 밀도를 갖고 있는 심층들로부터만 표상되며 현상의 표상들은 심층내의 숨겨진 힘들과 단단히 결속되어 있으므로 그것들은 심층의 구조 및 그 운동양식에 의해서만 분석되어져야 한다는 ‘근대적 에피스테메’, 말하자면 뉴우튼적 인식론에 의거하여 상품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즉, 상품의 가치는 어떤 고유하며 유일한 실체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물적 크기** 역시 이 실체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실체라는 것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므로 외부현상 및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구조 속에서도 변함없는 양적 크기를 지닌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가치결정에 시장구조, 교환관계, 수요, 분배체제 등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직 생산조건만이 관계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논리 자체는 전적으로 ‘형태주의적 시각’을 배제한 것으로서 상품경제외의 또 하나의 축, 즉 화폐경제의 역할을 무시한 것이었다. 베일리는 이러한 고전학파 가치논리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치결정논리를 ‘형태주의적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 특히 실체주의가 발생시킨 오류가 리카도의 不變의 價値尺度의 규명이라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의 이론적 부정에 전력하게 된다.

그런데 ‘형태주의적 시각’에서의 가치분석이라는 베일리의 가치논리는 학설사상 어떻게 위치지우고 평가해야 할 문제인가? 그가 당시에 미친 학설사적 영향은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J. S. 밀(J. S. Mill)에 미친 영향으로서 J. S. 밀로 하여금 어느 한 요소를 가치결정요인으로 볼 것이냐 하는 당시의 일반적 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생산비론을 정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결국 베일리를 J. S. 밀을 거쳐 마샬로 이어지는 신고전파적 ‘경제학’ 패러다임으로의 발전추세에 위치지우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맑스(K. Marx)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으로서 맑스로 하여금 고전학파 가치논리를 극복하는 주요 이론인 가치형태논리의 수립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베일리를 리카도 정치경제학체제로부터 맑스 정치경제학체제로의 발전도상의 한 계기로 위치지우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상반된 평가는 베일리의 가치논리를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의 어떤 논리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달리 나올 것이다. 어쩌면 양자의 견해 다 옳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주로 후자의 견해에 따라 베일리의 가치

논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베일리 자신이 언명하듯이 그의 모든 논리의 意義는 리카도 가치논리의 이론적 거부 및 부정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이론적 공격은 고전학과 세계의 골칫덩어리였던 불변의 가치척도의 문제를 불필요하게 만든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여기서는 베일리의 리카도 가치론 비판 및 주장을 전부 검토해 보고 이것이 맑스에 미친 영향, 그리고 맑스 가치론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의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고찰해 볼 것이다.

II. 價値의 本質

베일리가 보기에 리카도 정치경제학체계의 모든 근본적 결함은 방법론적으로 歸納法이 아닌 演繹法을 따름에 따라 비롯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리카도 정치경제학은 경험적 현상과 관찰을 무시하고 일반적 원리 및 명제들을 관념적으로만 도출해 내는 현실과 유리된 과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 그에 따르면, 리카도는 현실의 관찰로부터가 아닌 '架空의 유추', 즉 추상화과정으로부터 이론적 명제들을 도출하기 때문에 그의 이론에는 논리의 명확성과 용어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絶對價値의 이론적 논증과 불변의 가치척도의 탐구라는 형이상학적 관념이 그의 정치경제학체계에 있어서 과제로 되었던 것이며, 이로 인해 고전학과 정치경제학 자체가 혼돈의 급류에 휘말렸다고 본다.

베일리는 정치경제학을 인간의 日常生活에 대한 탐구과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리카도와는 달리 일반적 원리를 구축함에 있어서 인간의 行爲動機가 사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 그가 고려한 인간의 행위동기는,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행위동기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關係網'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동기였다. 그러므로 限界效用論者들처럼 로빈슨 쿠루소와 같은 고

1) 이 시기에 베일리와 같은 입장에서 리카도의 方法論을 비판한 사람으로는 존스(R. Jones)와 웨일(W. Whewell)이 있다. 이들은 각기 『租稅의 源泉 및 富의 分配에 관한 理論』(R. Jones, 1831) 그리고 『리카도 '政治經濟學原理'에서의 몇몇 주요 이론에 대한 數理的 論述』(W. Whewell, 1831)이라는 저서에서 리카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정치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연역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귀납적 방법론으로서의 정치경제학방법론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펠더스, 토렌스, 롱필드(M. Longfield), 스크롭(G. P. Scrope), 휘틀리(R. Whately) 등이 연역적 방법론을 옹호함으로써 方法論論爭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방법론논쟁에 대한 간략한 개관에 대해서는 홀랜더(S. Hollander [17], pp. 409~414)를 참조하라. 그런데 1830년대 이후부터는 귀납적 방법론이 설득력을 잃고 연역적 방법론이 일반적인 방법론으로서 채택됨으로써, 이런 면에서 一面 리카도 정치경제학체계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은 그의 방법론밖에 없게 된다는 평가도 나왔다. 스페터는 리카도로부터 비롯된 演繹方法論, 모델구축에 기초한 이론의 수립이라는 전통이 오늘날 주류경제학 논리에 강화되고 있다는 면에서, 이를 '리카도의 害惡'(Ricardo's Vice)이라고 부른다.

립된 만족의 섬에 놓여 있는 인간의 심리적 동기 및 감정을, 즉 순수한 심리적 주관주의만을 이론적 전제로 고찰하지 않는다. 그는 “타인의 정신적 감정의 결과를 자신의 정신적 감정의 관찰을 통하여 省察(reflection)하고, 그 위에서 정치경제학의 일반적 명제를 도출해야 한다”²⁾고 함으로써 ‘단순한 주관주의적 귀납방법론’이 아닌 ‘客觀에 기초한 주관주의적 귀납방법론’을 주장하는 것이다.³⁾ 이러한 그의 독특한 방법론은 가치의 본질, 척도 및 원인에 관한 논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오히려 리카도가 간과한 가치실체의 표상 및 그 형태에 관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그의 방법론적 인식을 전제한 가운데 그의 논의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베일리에 따르면, 價値란 무엇보다도 어떤 물적 대상에 대한 평가로서 정신이나 감정에 의해 산출된 효과이다. 그러나 이 때 그 효과는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대상 자체의 소재적 質(material quality), 말하자면 물적 대상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경제주체에게 효용이라고 불리우는 심리적 쾌락이나 만족의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대상들을 교환 및 선호의 대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획득된 것이라고 본다. 즉, 가치가 정신적 작용의 효과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한 대상과 경제주체의 욕구 간의 소비관계로부터 야기된 정신적 작용의 효과가 아니라, 각 물적 대상들간의 교환관계 요컨대 상품들간의 가치관계를 매개로 하여 일어난 정신적 작용의 효과라는 것이다. 이는 곧 가치의 발생을 그것이 效用이든 勞動이든 간에 대상 자체의 고유한 내재적 속성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상과의 교환관계에 의해 표상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베일리가 가치를 정신의 산물로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主觀的 價値學說의 선구자로 평가하는 셀리그만(E. Seligman)과 라우너(R. Rauner), 보울리(M. Bowley), 오브라이언(D. P. O'Brien) 등의 주장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⁴⁾ 그는 정신의 평가나 감정의 평가를 가치발생의 기초로 놓되, 그러한 정신의 효과 및 감정의 평가는 직접 비교, 계량될 수 없으며 오직 한 대상의 다른 대상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에 있어서 가치는 의식의 반영이지만 재본스처럼 最終效用度(final degree of utility) 비율의 반영은 아니며, 상품의 교환관계를 밝히는 구매력 비율의 반영으로서 간주된다. 그는 효용을 가치의 전제로 놓지 않고 오히려 가치의 성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하자면, 외적 조건인 생산비가 구매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

2) S. Bailey [5], p. xix.

3) 西岡幹雄 [37], p. 106 참조.

4) E. Seligman [33], pp. 335~363, M. Bowley [10], pp. 67~68, R. Rauner [29], D. P. O'Brien [28], in ed. by W. O. Thweatt, *Classical Political Economy*, p.200 참조.

신적 작용을 가능케 하여 그 결과 상품들간의 교환관계가 확립됨으로써 가치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재관적 성질에 의해 주관적 감정이 규정되는 관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명백히 한계효용학과와 같은 주관적 가치학설적 논리가 아니라 하겠다.

아무튼 이와 같은 가치규정에 따라 배일리는 궁극적으로 가치의 본질을 효용이나 노동이 아닌 ‘關係’(relation)에 놓고 가치의 원인을 生産費에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치는 대상의 내재적 성질의 즉자적·절대적 표현, 예컨대 效用量이라는가 勞動量이라는 식으로 측정되지 않고 한 대상의 다른 대상에 대한 ‘관계’내에서 상대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즉, 가치는 x 량의 상품 $A=y$ 량의 효용도 또는 z 량의 노동량이라는 식으로 측정되지 않고, x 량의 상품 $A=y$ 량의 상품 B 로, 만일 그 비율이 1:2라면 $1A=2B$ 라는 식으로 교환되는 다른 상품의 수량으로 相對的으로만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표현의 재료는 결코 노동이나 효용이 아니며, 그 상품의 사용가치 형태와 질적으로 상이한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 형태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배일리는 가치를 사용가치들간의 교환비율, 즉 상대가치 내지는 교환가치 형태로서만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치실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오직 교환가치가 양적 비율로 표시되는 가장 표면적인 가치표현형태만을 고려한 形態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⁵⁾ 그러나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그가 교환가치와 가치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교환가치 범주만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가치범주를 사실 거의 대부분 상대적 측면에서만 인식하였던 — 배일리의 오해와는 달리 — 고전학파의 전통을 오히려 일관된 논리로 정교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상품 그 자체의 내재적 성질과는 무관하게 오직 $1A=2B$ 라는 식으로 두 상품이 서로 사용가치로서 마주 대하는 관계에 놓이기만 하면 가치는 측정되고 표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과연 이러한 가치표현관계, 즉 ‘=’의 成立可能性은 무엇에 의해 비롯된 것인가? 배일리는 상술한 것처럼 일반적 원리란 경험적 사실로부터 성찰해 내고 체계화시킨 지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現象으로부터 深層으로 분석해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가치관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필연성에 대해서 전혀 탐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있어서 ‘=’의 성립 논리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첫째, ‘=’관계가 그 자신의 사용가치로부터 독립해 있는 價値物간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사용가치 형태 그대로 각각의 사용가치들이 교환되는 관계, 즉 購

5)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맬더스는 일찍이 배일리의 가치개념은 순전히 價格概念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T. R. Malthus [20], pp. 140~141 참조.

買關係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가치표현관계를 등가관계가 아닌 구매력의 표현 관계로서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A=2B$ 의 관계가 동일한 가치로서의 교환 비율의 관계로 고려되지 않고, A상품 1단위는 B상품의 그것을 2배 또는 B상품 1단위는 A상품을 1/2단위배 만큼만 구입할 수 있는 支配力(구매력) 關係로써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매관계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가? 이것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으로, 즉 화폐를 M, 상품을 C로 표시할 경우 M-C로 전화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구매관계에는 이미 가치의 성립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은 다만 가치의 轉化過程일 뿐이다. 베일리는 위 관계에서 가치의 성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바는 단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가치의 표상일 뿐이다. 그는 구매력이라는 다른 상품에 대한 이 吸引力이 왜 $1A=2B$ 또는 $1B=1/2A$ 라는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극단적인 形態主義 내지는 相對主義者로서⁶⁾ 가치의 절대적 측면을 철저히 거부함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어떤 物의 힘이 —여기서는 구매력— 홀로 표출되지 못하고 다른 物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함은 이미 그 자신이 잠재적 성질로서 그 힘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예컨대 자석이 소유하고 있는 磁力은 끌어당기는 대상이 없어도, 즉 그 자력을 현상적으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는 힘을 잠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관계되는 물체가 나타나기만 하면 서로 발휘되는 자장공간의 범위에 따라 끌어당기는 힘을 양적으로 보인다. 베일리는 이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둘째, 그것은 단순히 “두 物이 교환가능한 것으로서 맺는 관계”, 말하자면 순수한 교환비율로서도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교환 내지는 일정한 교환비율의 성립이 가능케 된 것은 무엇에 의해서인가? 이미 상술한 바처럼 베일리는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A/B=1/2$ 이면 $B/A=2/1$ 의 교환관계가, 즉 $1A=2B$ 이면 $2B=1A$ 가 가능하다는 교환의 사실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논리적으로 볼 때 $A=B$ 이면 $B=A$ 가 되고 따라서 $A=A$ 라는 결론을 유추하므로, “어떤 한 物은 다른 物과의 관련없이 그 자신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한 자신의 논의와 모순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은 왜 야기되었는가? 자연현상내에서의 物의 관계와는 달리, 사회현상내에서의 物의 관계 요컨대 노동생산물간의 관계는, 교환관계가 교환‘하’는 상호 교환관계로서가 아니라 교환‘되’는 관계, 즉 규정관계로서 현상한다.⁷⁾ 베일리는 이러한 양자간의 차이를 구분 못 하고 동일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6) M. Dobb [14], p. 99 참조.

7) K. Marx [42], p. 207 참조.

極微의 世界를 탐구하는 많은 현대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침투(interpenetration)적이어서 질량과 에너지는 等價性關係에 있으며, 나아가서 자연내의 물질, 즉 亞原子粒子들은 입자이면서도 파동하는 역동적 '패턴'(pattern)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연현상내의 모든 物은 어떤 기본적인 實體로 환원될 수 없으며, 전적으로 '自己一貫性'(self-consistency) 있는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고 아울러서 그 자체와도 일관성이 있는 '自己組織性'(self-organization) 있는 존재로, 말하자면 그 어떤 것에도 규정되지 않는 '關係網내의 관계'로서만 존재한다고 본다.⁸⁾ 베일리의 '관계'논리는 바로 이러한 현대물리학적 사고방식과 동일한 논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나중에 보게 되는 것처럼, 그가 가치의 측정은 두 點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자연적 측정의 문제와 다른 것이라고 하며 價値의 척도에는 自然의 척도와는 다른 척도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가치관계를 이 두 點간의 거리관계 논리와 동일한 논리로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현상내에서의 物의 교환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 즉, 교환관계내에 있는 物은 이미 전제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현상내에서의 관계는 교환에 先行하며, 교환은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이 관계는 사회적 노동에 의해 동질화된 공간내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노동이라는 실체와 연관되어 성립된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연현상내의 物의 관계와는 달리 사회현상내의 物의 관계는 '자기일관성'이나 '자기조직성'을 지니지 못하고 사회적 노동이라는 실체로 환원되어야만 하는, 즉 사회적 노동이라는 실체로부터 규정당해야만 하는 관계(determined relation)라 할 수 있다. 사과 10개와 책 2권의 교환관계는, 그것들이 사과와 책이라는 물적 존재로서 무수히 많은 교환관계들 중 하나의 교환관계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사과와 책이라는 사용가치 형태와 구별되는 '동등한 그 무엇'으로서 사회적으로 等値되는 관계이다. 말하자면 독자적인 자기자신의 사용가치 형태와 아주 상이한 다른 物과 이미 '가치'라는 동등한 실체에 의해 동질화되어 그 量이 같음으로써 맺어진 관계이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면, 사회현상내의 관계는 '關係網 속의 關係'가 아닌 '規定되는 關係'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자연현상내의 物의 관계와는 달리 사회현상내의 物의 관계가 실체에 의해 규정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의 양적 표현에 있어서도 자연현상내의 物간의 표현관계는 예컨대 질량과 에너지의 等價性이라는 원리에 의해 어떤 한 物의 존재를 표현의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없이 '상호표현'이 가능하지만, 사회현상내의 物간의 표현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한 쪽을 반드시 다른 한 쪽의 표현을 위해 수단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상호표현'이 가능한 자연현상

8) 프리츨프 카프라 [3], pp. 15~82 참조.

내의 두 物은 상호 침투적이어서 구별되지 않은 양극(兩極間對稱性)으로서 존재할 수 있지만, 가치표현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현상내의 두 物은 가치물로서 상호 동등하더라도 한 쪽은 가치 형태, 다른 한 쪽은 동가형태라는 방식으로 서로 대극적으로 배분된 양극(兩極間非對稱性)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⁹⁾ 對極적으로 배분된 양극이라는 것은, 양극이 가치표현에서 상호계약된 불가분의 계기이면서도 한 쪽의 형태는 다른 한 쪽의 형태로 있을 수 없다는 양극간 相互排除性 현상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과 10개=책 2권이라는 가치표현관계식에서 이 관계식의 어느 한 쪽은 반드시 다른 한 쪽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술한 $1A=2B$ 는 또한 $2B=1A$ 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베일리의 논술은 자연현상내의 物의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와 혼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서로 다른 가치표현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¹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이러한 논술방식은 가치의 '相對的'(relative) 표현양식을 '相互的'(reciprocal) 표현양식으로 해소하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¹¹⁾ 한편 자연현상내의 두 物의 관계와 사회현상내의 그것을 비교함에 있어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현상내의 두 物은 존재의 역동적 패턴으로 인해 반드시 동질적 존재공간이 아니어도 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사회내의 두 物은 일정한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 사용가치 형태가 달라도 반드시 동질적인 사회적 공간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맑스는 다음과 같이 논하며, 가치공간의 동질화 이후에야 비로소 가치가 양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되고 가치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인용자-사회현상내에서) 두 物의 거리를 論할 경우, 우리가 논하는 것은 空間내에서의 이 物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두 物이 동시에 공간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즉 공간내의 두 개의 點이라는 것이 상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간의 존재방식이 동시에 두 物을 동등화한다. 동등화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두 物을 공간의 관점에서, 공간의 상이한 두 점으로서 구별하게 된다. 공간에 속해 있다는 것이 두 物의 共通單位이다.”¹²⁾

9) 그래서 이러한 논의와 동일하게 아더(C. J. Arthur [4])는 ' $A=A$ '는 價値의 表現이 아니라 使用 價値量의 表現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러한 등식은 동가 자체를 自然的(소재적)·質的 同一性으로만 파악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 $A=B$ '의 표현은 가치의 표현으로서 그 동일성을 對立的·量的 同一性으로 보는 것이라고 한다.

10) 맑스는 베일리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순한 가치표현등식에서의 兩極間 非對稱性을 명확히 밝혀 준다. 그런데 일부 논자들은 맑스가 『資本論』 초판에서 단순한 상대적 가치형태를 설명할 때 '逆의 論理'를 주장하였다고 해서 베일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맑스는 위와 같은 $1A=2B$ 라는 가치등식을 결코 베일리처럼 '상호적 표현'으로 해소하지 않았다. K. Marx [24], 1st edition, p. 22 참조.

11) 玉野井芳郎 [39], pp. 259~260 참조.

12) K. Marx [42], p. 210 참조.

두 物을 가치로서 관계를 맺도록 해 주는 두 物을 포함한 공간, 즉 동일이름의 단위란 맑스에 따르면 —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사회적 노동이라고 표현했지만 —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추상적 인간노동(abstract human labor)을 의미한다. 어떤 한 物은 이 양의 크기에 의해 그들 가치의 크기인 내재적 척도를 갖는 것이며, 이렇게 內在的 尺度에 의해 동등한 가치로서 규정되고 관계된 후에야 비로소 등가물로서의 다른 物의 사용가치에 의해 표현됨으로써 外在的 尺度를 갖게 된다. 이런 면에서 상품의 가치는 절대적인 차원으로부터 상대적인 차원으로 전화해 나가는 것이 지 그 반대는 아님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리카도는 상품의 가치를 동일단위인 노동으로 귀착시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상품량비율로서의 상품의 상대가치는 상대적 노동량비율에 의해 卽時的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더욱이 노동량 투입이 불변인 불변의 가치척도를 전자와 대응시킴으로써 절대가치도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그는 내재적 척도를 그대로 외재적 척도로 사용하고 오히려 상대가치로부터 절대가치로의 전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것은 이 때 그가 고려한 상품들의 양적 교환비율(사용가치량비율)이 가치로서의 상품형태간 교환비율이 아니라, 가치로서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위해 자기자신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대적 노동량비율이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오직 상품에 포함된 노동량이 가치량의 차이를 보여 주는 내재적 척도임을, 노동이 상이한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을 동등하게 만드는 共通單位임을, 요컨대 가치의 실체가 노동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서, 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로 표현되는 관계 및 가치표현 문제를, 즉 가치의 외재적 척도 문제를 간과한 '실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리카도와 반대로 베일리는 가치의 본질을 한 상품의 다른 상품과의 관계로 고찰함으로써 이 관계에서의 표현, 즉 이미 가치를 전제하는 外的인 가치척도만을 고려하고 이 관계의 성립이유인 내재적 척도 문제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그에 있어서는 상술한 것처럼 가치측정관계가 가치관계 내지 등가물의 교환관계, 나아가서는 노동간의 교환관계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구매관계 내지는 단순한 교환의 사실만을 밝혀주는 관계, 즉 교환비율성립의 名目主義的 關係로서 파악된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베일리는 x 량의 상품 $A=y$ 량의 상품 B 가 $1A=2B$ 로 교환되는 비율관계, 그 비교관계의 근거를 표상의 세계인 상품유통의 영역에서 찾게 된다. 즉, '第3의 商品', 예컨대 C 상품과의 관련 속에서 $1A=2B$ 라는 A 상품과 B 상품 간의 가치표현관계의 기초를 구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상품은 사용가치 그 자체로서는 비교될 수 없으며, 가치가 측정될 수 없다. 그것들이 상호 비교되고 측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어떤 매개수단을 통하여 질적으로 동등화되고 양적으로 비교가능한 공통분모로 환원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第3의 商品'(commodity of the third)을 통해 價格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 것이다. '第3의 商品'이란 사회적으로 승인된 가치표현의 공통수단으로서 일반적인 것은 화폐상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베일리는 "상품의 가치는 가격에 있어서의 상호 비율로 표현"¹³⁾ 된다고 하며, 가격이 두 상품간 비교의 공통분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A상품의 가치와 B상품의 가치가 같다"는 말의 의미는 각 상품에 내재해 있는 가치의 等價性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A와 B가 '第3의 商品' 즉 화폐상품 내지는 '商品 一般'과 동등한 비율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파악된다. 다시 말하자면, A의 C에 대한 비율, 그리고 B의 C에 대한 비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해된다. 만일 그 비율관계를 x로 표시한다면, $A:C=B:C=A:B=x$ 로 된다는 것이다.

이는 토렌스의 마지막 가치표현식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그러나 토렌스는 상품들간 관계의 단순한 나열, 말하자면 가치표현의 특수형태로부터 同一單位를 부여해 주는 가치표현의 일반적 형태를 도출하고 있지만, 베일리는 그 반대의 과정을 전개하고 있다. 베일리는 가치개념이 關係인 한, 상품의 내재적 속성에 기인한 등가성 자체는 교환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며, 상품의 유통영역에서 어느 한 상품을 '제3의 상품'으로 定在시키고 이것을 표현의 공통수단으로 삼기만 하면 모든 상품들간의 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렌스와는 달리 궁극적으로 모든 가치표현관계들, 즉 상품對 상품 간의 가치표현관계, 그리고 상품對 화폐 간의 가치표현관계, 나아가서는 단순한 가치형태로부터 화폐형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가치형태들의 '자기일관성' 내지 '자기조직성'을 주장하게 된다. 모든 가치표현관계들 내지는 가치형태들은 각각 '關係網' 중의 하나의 관계로서, 비록 상품對 상품 간의 관계도출에 상품對 화폐 간의 관계가 전제되고 있어야 하지만, '關係網' 속에서 조망해 보면 그것들은 어느 하나의 관계가 다른 하나의 관계를 규정하는 관계로서가 아닌, 서로의 존재를 위한 상호의존관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각 가치표현관계 및 형태들이 다른 가치표현관계 및 형태들로부터 질적으로 전화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상호 내재·포함함으로써 同時性論理하에 모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사고방식이다.¹⁵⁾ 이에 따라 베일리는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들이 그토록 강조한 상품의 실질가치와 명목가치 간의 구분¹⁶⁾조차 쓸모없는 시도라고

13) S. Bailey [5], p. 99, S. Bailey [6], pp. 13~14 참조.

14) 權英燾 [2], pp. 76~83 참조.

15) 이러한 베일리의 논리는 오늘날 바크하우스(H. G. Backhaus)를 비롯한 독일의 資本論理派(Kapitallogik)의 가치형태론 주장으로 계속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지만 맑스의 『政治經濟學批判要綱』의 내용에서도 모든 가치형태들의 同時性論理를 볼 수 있다.

생각하게 되었다.

“상품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과 교환관계를 맺는 것에(인용자-그 本質 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는 상품에 따라서 화폐가치, 곡물가치, 옷의 가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비교되는 상품의 種類에 따라 무수히 많은 상이한 종류의 가치를 언급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가 同一하게 實質的이면서 名目的이다.”¹⁷⁾

그러나 이러한 베일리의 주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명백히 해야 할 것은, 그는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가 논의하는 모든 내용에 의거하여 볼 때 가치범주와 가격범주가 동일시되고 나아가서는 오직 가격범주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質적으로 상이한, 즉 사용가치가 다른 상품들이 상호 교환·비교 되려면 ‘제3의 상품’을 통해 비교의 공통단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때 ‘제3의 상품’은 분명히 비교하고자 하는 상품들의 사용가치로부터 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교환가치의 절대적 定在形態임을 간과하고 있다. ‘제3의 상품’인 화폐는 비교를 위한 매개수단으로 될 때, 즉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사용가치 내지는 가치척도로서 대응될 때, 그 상품에 직접적으로 가격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사회적인 價値物, 소위 一般的 等價物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상품유통공간으로부터 배타적으로 떨어져 나와 사적 생산물의 일종이 아닌 사회적 생산물 그 자체로서 인정되고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대응하는 상품들은 일반적 표현으로서의 가격이 아닌 — ‘제3의 상품’이 金이라면 — 金으로서의 개별적인 特殊한 價値表現만을 얻을 것이다.

16) 참고로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들이 정의한 실질가치개념 및 명목가치개념을 보면, 스미스는 實質價値를 한 상품이 지배하는 노동량으로서 名目價値를 한 상품이 지배하는 화폐량으로서, 맬더스는 실질가치를 필수품, 편의품에 대한 구매력으로서 명목가치를 귀금속량에 대한 구매력으로서 그리고 리카도는 실질가치를 그 상품생산에 부하된 노동량으로서 명목가치를 다른 상품생산에 부하된 비교노동량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베일리가 보기에 이러한 식의 논의는 어떤 하나의 방식에 의해 측정된 것이 實質이고 다른 방식에 의해 측정된 것이 名目이라는 논리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베일리의 비판과는 달리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들의 논의는, 비록 그들이 가치개념과 교환가치개념을 구분 못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치범주와 가격범주를 구별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價値의 척도와 價格의 척도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 물론 리카도는 양자를 동일시했지만 — 그러나 그 구분은 가치척도로서 노동을 선택하느냐 화폐를 선택하느냐에 따른 양자택일적 구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즉, 교환관계에 있어서의 상품과 노동과의 관계 그리고 상품과 화폐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베일리의 비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맑스는 『政治經濟學批判要綱』에서 가치와 가격 간의 양적 구별은 질적 구분(노동과 화폐와의 연관성 속에서의 구별)에 의해 條件化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맑스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할 때 고전학과의 양적 구별시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7) S. Bailey [2], p. 39 참조.

베일리는 이와 같은 '제3의 상품'으로서의 화폐의 성립조건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대응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무수히 많은 가치(가격)형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며, 그것을 화폐(가격)형태와 동일한 차원에서 병렬되어 있는 것으로서 놓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토렌스와 동일하게 화폐 가치와 곡물가치, 옷의 가치 등 다른 모든 상품들로의 가치표현간의 내재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화폐가치와 곡물가치, 옷의 가치 등 대응해 있는 상품의 사용가치에 의한 표현가치 양자는 항상 동등한 價値量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양자 모두 양적으로 동등한 가치표현 형태들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설사 이들 관계들이 항상 양적으로 동등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양 표현형태는 질적으로 별개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¹⁸⁾ 맑스에 따르면 화폐가치(가격)는 '상대적 가치의 일반적 표현' 내지 '교환가치의 화폐형태'로서 名目價値(가격)이지만, 곡물가치(가격), 옷의 가치(가격) 등 다른 모든 상품들의 사용가치로 표현되는 가치(가격)들은 '상대적 가치의 특수적 표현' 내지 '교환가치의 특수 사용가치적 형태'로서 實質價値(가격)를 나타낸다. 베일리가 이처럼 양 표현형태의 차별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차원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곧 토렌스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렌스는 무수히 많은 商品群과의 가치표현관계인 '전개된 가치형태'와 '특정한 상품' 일정량에 대한 관계로 규정되는 화폐형태 및 가격형태를 구별하고, '전개된 가치형태'로 규정되는 교환가치의 변동과 가격변동을 고찰함으로써 비록 그 서술 방식에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치의 실질적 측면과 명목적 측면을 구분하고자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베일리는 토렌스보다도 더욱 더 현상의 세계의 極에서 있는 형태주의자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상품의 실질가치/명목가치 구분문제를 아예 名目價値論(가격론)으로 一元化하고 있으며, 화폐가 노동으로부터 나아가서는 가치형태논리를 매개로 하여 상품으로부터 質적으로 자기전화해 나온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즉, 화폐의 본질은 단순히 '第3者'(the third)의 명칭을 상품경제의 내적 논리와 무관하게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상품이 다른 모든 상품들로부터 교환가치의 독립화된 자태를 얻음으로써 공통의 단위를 찾는 수고없이도 어느 상품과도 교환가능한 일반적 등가물로 된 데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베일리에 있어서는 화폐 역시 곡물이나 옷처럼 상품이라는 본질만이 언급될 뿐, 왜 어느 특정한 상품이 가치크기의 양적 표현을 위해 화폐라는 사회적 승인권을 획득하게 되는가는 전혀 규명되지 않는다. 이는 누차 언급한 것처럼 어느 한 상품의 무수히 많은 다른 상품들과의 가치표현관계(전개된 가치형태)와 화폐에 대한 가치표현관계(일반적 가치형태 및 화폐형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만 인식될 뿐, 전자 표현관계와 후자 표현관계

18) K. Marx [42], p. 215 참조.

간의 질적인 구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사고방식이라 하겠다.¹⁹⁾ 그러나 이 경우 흥미로운 것은 노동과 화폐와의 내적 연관성, 상품—화폐의 동시성 논리는不在하고 있지만 제2·3형태의 동시성을 고려하고 화폐를 상품가치의 양적 표현을 위한 직접적인 척도로 삼음으로써, 나중에 『資本論』 初版에서 보게 되는 맑스의 논리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실 베일리가 이와 같이 價値測定空間으로부터 배타적으로 독립되어 나온 상품으로서 화폐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의도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가 보기에 리카도를 비롯한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들이 불변의 가치 및 불변의 가치척도를 추구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은, 상품 對 화폐 간의 관계를 상품 對 상품 간의 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절대적인 관계로 고찰함으로써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를 절대가치의 外觀으로 생각하고 이로부터 상품 對 화폐 간의 관계는 불변의 관계이어야 하며, 따라서 가치척도 역시 불변의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고 인식한 데 있다는 것이다.

누차의 그의 강조에 따르면, 가치의 본질은 ‘關係’에 있으므로 불변의 가치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어느 한 상품이 불변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다른 상품에 대한 구매력과 교환될 양이 결코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關係’로서의 가치개념 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 그에 따르면 A와 C와의 관계가 불변이고 B의 C에 대한 관계가 변동할 때, A와 B의 관계가 불변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고방식이다. 만일 A와 B의 관계가 불변이라면 A와 C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B와 C의 관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관계들도 불변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영원불변의 우주적 평형은 어떻게 가능한가? 리카도는 불변의 가치척도를 현실적으로 발견하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의 논리는 측정될 상품이 불변의 가치척도의 생산조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만 성립가능한 것이므로 정말로 예외적인 理想的 狀態에서나 이룩될 수 있었다.

한편, 논리적으로도 볼 때 어느 한 상품의 가치규정원인이 불변이더라도 비교·측정되는 다른 상품의 가치규정원인도 불변이지 않으면, 표상되는 상품의 가치는 결코 불변으로 될 수 없다. 예컨대 B상품의 투하노동은 불변인데 A상품의 투하노동이 2배 증가하여 그 가치가 2배로 증가하였다면, 이는 A가 B에 대해 2배의 가치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반면 B가 A에 대해서는 전보다 1/2의 가치로 감소하였

19) 베일리가 이렇게 전개된 가치형태와 일반적 가치형태 및 화폐형태를 동일적 현상으로 고찰하는 점은, 맑스로 하여금 勞動—價値와의 연관성을 밝혀 주는 결정적 매개물로서 화폐를 분석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양 형태의 차별성, 즉 전개된 가치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논리적 이행의 필연성을 규명해 주는 내적 메커니즘을 탐구하도록 하는 계기를 부여해 주었다. 즉, 맑스에게 『政治經濟學 批判을 위하여』 단계에서까지 양 형태의 차별성이 명확히 논술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資本論』 초판단계에서는 비로소 분명하게 언급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다.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關係'로서의 가치개념 아래에서 볼 때, A의 가치(A의 B에 대한 가치)는 변동하였는데 B의 가치(B의 A에 대한 가치)는 불변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지나지 않게 된다.²⁰⁾ 리카도는 어떤 상품이 동일노동량에 의해 생산되기만 하면 그 상품은 동일가치에 있게 된다고 말할 때 논리적으로 가치결정에 관련된 반쪽 원인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로 인해 설사 불변의 가치 상품이 존재가능하더라도 불변의 가치 역시 보일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베일리에 따르면, 리카도가 주장하는 불변의 가치 및 불변의 가치척도는 實在的으로나 論理的으로도 존립불가능한 관념적 考案物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논의 자체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드디어 우리는 '關係'의 측면에서 가치개념을 규정한 그의 논의가 완전히 가치실체 및 가치규정문제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결론하게 됨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인정하듯이 불변의 가치 및 불변의 가치척도 문제의 추구는 궁극적으로는 가치실체 및 가치규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III. 價値의 尺度와 貨幣

1. 價値의 尺度

그러면 가치의 척도는 어떠한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베일리에 따르면, 그것은 比較의 媒介物(medium of comparison)로서 사용되는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일 뿐이다. 즉, 직접 비교·측정될 수 없는 면직물이라는 사용가치로서의 상품 A와 옷이라는 사용가치로서의 상품 B로 하여금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공통의 단위를 부여해 주는 媒介物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實在的인 價値尺度가 아니라, 측정을 위한 대비를 내포하는 하나의 사회적 '過程'(process)으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¹⁾

베일리가 보기에 리카도는 가치의 측정을 길이나 무게의 측정과 같은 自然物의 측정과 동일현상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예컨대 A상품과 B상품 간의 가치의 비교 문제를 어떤 피트자(尺)에 의해 나무의 길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自然物인 나무의 경우, 그 길이는 이미

20) 베일리는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太陽으로부터 地球로의 거리는 변하였지만, 지구로부터 태양으로의 거리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S. Bailey [5], p. 12 참조.

21) 이는 그의 "價値尺度라는 용어는 시장에서 직접 교환될 수 없는 A와 B 두 개의 상품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이다"(S. Bailey [6], p. 4)라는 언급에서 잘 나타난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며 피트자를 통하여 다만 그 길이를 확인받을 뿐이다. 나무는 척도인 피트자와의 직접적인 對者的 關係를 통하여 척도 자신의 길이로 환원 내지는 이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自然的 尺度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自然物을 직접 척도·측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신 불변이어야 하며, 아니면 변동하더라도 그 변동의 정도가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생산물로서의 상품의 가치측정은 다르다. 예컨대 면직물 5마와 옷 한 벌이라는 상이한 사용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 단위도 상이한 상품의 가치를 비교·측정하고자 할 때, 그것들은 자연물인 나무의 경우처럼 잠재적으로 공통의 명칭을 그 자신의 體內에 사전적으로 지니고 있지 못하므로 社會的 尺度인 '제3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공통의 명칭을 획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가 상품이라는 사용가치 실체의 외부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제3의 상품'과의 관계를 통하여 공통의 단위로 환원됨으로써만 비로소 양자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제3의 상품'은 피트자와 같은 자연적 척도가 아니며, 단지 비교의 매개물로서 측정의 명칭을 부여해 주는 社會的 過程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의 물리적 속성이 가변인가 불변인가는 알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를 표상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가변적인 속성을 지녀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베일리는 價値의 尺度는 自然的 尺度와 구별되어야 하며, 그것을 空間의 尺度와 동일한 것으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베일리가 제시하는 공간의 의미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첫째, 교환관계를 맺고 있는 상품들의 社會的 運動空間으로서의 의미이다. 말하자면 각 상품들이 교환에 의해 대자적 관계하에 놓여 있는 가치표현공간을 의미한다. 교환이 매개되어야 비로소 가치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그의 논리는,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들의 自然的 尺度觀이 드디어 일소되고 社會的 尺度觀으로의 전환이 일어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품관계를 사회적 관계로 고찰하지 못한 리카도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로 그 가치가 표현되기 위해 이미 각각의 상품이 '제3의 상품'인 화폐와의 관계 속에서 공통의 명칭을 얻고 있어야 한다면, 각 상품의 화폐와의 관계는 무엇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가? 상품이 金가격으로 표현 되려면 양자를 매개해 주는 또 하나의 '第3者'가 필요하다. 즉, 한 상품이 오직 '제3의 상품'으로만 공통의 명칭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공통의 '그 무엇'이 계속해서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베일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불변의 가치척도의 경우처럼 화폐를 관념적 고안물로서 제기하고 마는데, 공통의 '그 무엇'은 이미 앞에서 논했던 것처럼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抽象의 人間勞

動이다. 상품들이 질적으로 상이한 '제3의 상품'인 화폐상품과 관계하여 그 상품의 사용가치량으로서 자신의 가치량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사회적 노동인 추상노동에 의해 가치공간이 이미 질적으로 동등화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추상노동은 사적 노동생산물이 상호 교환을 통하여 상품형태를 취함으로써 형성되는 間接社會的 勞動이다. 따라서 가치로서의 상품에는 이미 교환이 사실상 상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²²⁾ 그러나 교환이란 物 그 자체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인간들간의 物의 교환으로서 본질적으로는 노동의 교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노동이 타인의 노동에 의해 규정되는 일정한 방법, 즉 사회적 노동의 편성양식 및 생산의 일정한 양식이 교환에, 나아가서는 가치공간의 동질화과정에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 베일리는 리카도를 극복하여 비록 가치의 척도가 사회적인 상품교환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올바르게 파악했지만, 상품과 화폐 간의 관계의 질적 기초를 분석하지 않음으로써 가치표현공간의 내용에는 위와 같은 의미의 사회적 생산양식 및 인간관계의 양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함을 알지 못했다.²³⁾ 그는 다만 가치표현공간이 사회적 공간임을 지적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에 의해 제기된 가치표현논리로서의 가치척도론을 '價値實體를 배제한 價値形態論理'로도 지칭하고자 한다.

둘째, 그것은 사회적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상호 침투하여 양자가 동질화되어 있는 공간, 즉 共時的 空間(synchronic space)의 의미이다. 베일리가 보기에 리카도가 불변의 가치척도를 요구한 것은 ①상대가치 변동의 원인의 규명과 ②異시간간, 즉 通時的 시간구조 속에서의 가치변동의 비교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이것은 모두 시간의 개입에 따라 야기된 문제이다. 리카도에 있어서 ①의 문제는 바로 異시간적 구조내에서의 자본구조의 상이성으로 인해 투하노동량외에 이윤율이 상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제기된 문제이며, ②의 문제는 ①의 규명을 위해 절대가치의 異시간간 비교에 따라 제기된 문제이다.²⁴⁾

우선 베일리는 ①의 문제는 상대가치개념을 상대적 투하노동량비율, 요컨대 상

22) 가치로서의 상품에 이미 교환이 상정되어 있어야 함은, 가치가 社會的 性質을 띠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베일리는 맑스가 物神性的 극치를 보여 주는 논술로서 例를 들고 있는, “富는 인간의 속성이지만 가치는 상품의 속성이다”라는 주장에서 보듯이 가치의 성질을 사용가치의 자연적 성질로 귀착시키고 있다. 이는 곧, 가치관계를 사용가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구매관계로 파악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 교환가치는 이렇게 특수한 상품의 具體的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양식,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표상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사실 맑스 이전의 어느 정치경제학자들에게서도 파악될 수 없는 문제였다. 고전학파에 있어서는 교환가치가, 外的 尺度로서의 화폐의 매개를 통하여 상품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 이상의 의미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즉, 교환가치와 생산관계와의 연관성이 무시되었던 것이다. 맑스는 이러한 점에서 物神性개념을 제기하는 것이다. A. Oakley [26], p. 154 참조.

24) 權英燾 [1], pp. 181~184 참조.

대적인 직접+간접 투하노동량비율로서가 아니라 '關係'개념으로서 고찰하기만 하면 문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리카도는 자본구조의 차이로 인해 야기된 이윤율변동 효과를 투하노동량변동 효과로부터 분리해 내어 가치변동이 무엇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고자 투하노동량이 불변인 불변의 가치 상품을 척도재로 삼고 이것으로 상대적 가치변동을 측정하고자 하였지만, 베일리가 보기에 리카도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價値原因의 變動, 즉 생산조건인 변동이지 가치 자체의 변동은 아니었다. 예컨대 만약 화폐가 리카도가 의미하는 標準商品이라고 할 때, t_1 기에 면직물 1야드(Yard)가 화폐와 관련하여 20원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곡물 1부셸(Bushell)이 10원으로 평가되고 있었는데, t_2 기에는 곡물의 화폐가치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반면 면직물의 그것은 10원으로 감소하였다면, 화폐로부터 공통단위를 획득한 면직물의 곡물에 대한 상대적 가치는 2/1의 가치에서 1/1의 가치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리카도에 있어서는 표준상품과 관련한 면직물의 가치(화폐가치)는 1/2로 감소하였지만 곡물의 가치(화폐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면직물의 곡물에 대한 가치변동은 면직물을 생산한 투하노동량이 1/2로 감소함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베일리는 리카도가 고려한 불변의 가치척도는 가치척도가 아니라 勞動의 尺度이며, 오직 투하노동량 변동만을 규명해 주는 매개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⁵⁾고 비판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例에서 보면, 通時的 시간구조 속에서의 면직물의 곡물에 대한 상대적 가치의 변화는 각 시기에 각 생산물들이 화폐로부터 부여받은 공통의 명칭, 즉 가격을 통하여 그들간의 가치관계를 안 후,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였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베일리는 이질적 시간구조 속에서는 결코 가치가 측정될 수 없으며, 다만 동질적 시간구조 속에서 측정된 가치만을 비교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문제의식에 따르면, 가치관계는 동질적 시간구조 안에서만 표상될 수 있고 이질적 시간구조 속에서는 가치관계의 비교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그런데 리카도는 상술한 例에서 보는 것처럼, 면직물의 곡물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이질적 시간구조내에서 측정하고자, 즉 면직물의 곡물에 대한 가치관계를 표상하고자 하고, 그것의 변동원인을 밝히기 위한 시도의 전제로서 불변의 가치척도를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상품들의 절대가치의 변동도 규명해 보고자 하는데,²⁶⁾ 이는 베일리에

25) S. Bailey [5], p. 128 참조.

26) 말하자면 리카도는 불변의 가치척도에 의해 상대가치와 절대가치를 구분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그의 시도는 무의식적으로 그가 가치실체와 가치표현의 차이(가치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權英卿 [1] 참조). 그러나 리카도는 내재적 척도와 외재적 척도를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반면 맬더스는 리카도의 이러한 그의 곤란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었다. 즉, 맬더스는 "絶對價値는

따르면 가치측정의 문제와 가치원인의 문제를 구분 못 하고 혼동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베일리에 따르면 가치측정은 共時的 공간에서 상품간 ‘關係’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지만, 가치변동은 通時的 공간에서 역사적(경험적) 記錄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상이한 시기에 價値關係가 존재할 수 없다면, 그것의 측정도 있을 수 없으며 요구되는 比較의 媒介物도 존재할 수 없다. 행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두 상품간에 존재하는 가치관계를 비교하는 것 뿐이다. 즉, 前期에 상품 A가 상품 B를 구매하는 양과 後期の 그것을 비교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이것은 가격으로 확인되므로 화폐가 비교의 매개물로 된다. —(그러나) 가치변동은 척도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歷史的 記錄에 의해 확인된다. 가치척도는 동시대의 비교매개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척도를 가질 수 있으며 생각도 가능하다.”²⁷⁾

따라서 그에 있어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가치가 불변이어야 하는 불변의 가치척도나 화폐는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화폐는 可變의 價値를 지닌다 하더라도, 共時的 시간구조내의 가치관계의 표상뿐만 아니라 通時的 시간구조내의 가치관계의 비교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비교의 매개물이기 때문이다.

베일리의 이와 같은 논의는,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들을 그토록 —특히 리카도를 — 괴롭혔던 불변의 가치척도의 문제 자체는, 화폐의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의 수립으로 해결가능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맑스에 앞서서 이루어진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스미스 이래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들은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만 주목하였기 때문에 화폐를 不完全한 가치척도로 생각해 왔다. 이러한 인식은 화폐성질의 均一性 및 소재의 不變性을 가치척도로서의 화폐기능의 불변성과 혼동함으로써 야기된 것이었다. 더욱이 리카도는 상대적 가치의 異시간적 비교를 위해 요구되는 화폐가치의 불변성을 가치척도의 불변성으로 오해함으로써 더욱 그러한 오류에 빠졌었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베일리는 가치척도의 適格性과 척도 자신의 불

본질적으로 생산비용이 불변인 상품에 의해 측정된 가치이지만, 相對價値 또는 명목가치는 어떤 ‘特別한 商品’이나 ‘商品 一般’과 관련해 있는 가치이다”(T. R. Malthus [19], pp. 1~2)라고 함으로써, 비록 혼란되어 있지만 내재적 척도에 의해 측정된 가치가 절대가치이고 외재적 척도에 의해 측정된 가치는 상대가치(교환가치)임을 밝혔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앞의 註 16에서 논한 맬더스의 실질가치/명목가치의 구분과 여기서 말하는 실질가치/명목가치의 정의가 다르다는 점이다. 前者의 구분은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즉 소득측면에서의 구분이지만, 後者의 그것은 가치와 교환가치 간의 범주적 차이의 대비측면에서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27) S. Baiey [5], pp. 115~120, S. Bailey [6], p. 13 참조.

변성은 무관제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異시간적 구조내에서 상대적 가치변동의 측정을 위해 요구되는 불변성은 척도의 불변성이 아니라, 화폐가 구매수단 내지는 지불수단으로 기능함에 있어서의 화폐가치의 불변성이었다. 이에 따라 앞의 ②의 문제, 즉 절대가치의 異시간간 비교문제는 불변의 가치척도와와의 대자적 관계를 통하여 가치의 절대적 크기의 양적 비교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한 상품이 화폐에 대해 갖는 구매력 크기의 비교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예컨대 t_1 期에 옷 한벌의 화폐가치가 12원에서 t_2 期에 6원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이는 옷 한벌의 화폐에 대한 절대적 구매력이 1/2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줄 뿐 결코 옷 한벌의 절대적 가치의 변동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베일리의 주장을 다시 요약해 보면, 通時的 시간구조내에서의 가치변동 및 비교의 문제는 가치관계의 異시간간 비교 내지는 변동의 문제로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화폐구매력의 변동문제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변동을 측정하는 척도의 불변성은 화폐가치의 불변성 및 화폐의 소재로서의 均質性, 不變性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베일리가 일찍이 ‘물가지수적 접근’하에 가격변동을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²⁸⁾ 리카도에 있어서의 상대적 가치변동의 문제가 그에 있어서는 화폐구매력의 변동, 즉 실질소득의 변동문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상술한 예의 경우, 그는 각 시점에서 화폐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상품가치의 변동은 단지 그 상품의 구매력 변동현상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품의 구매력 변동은 왜 일어났는가? 여기서는 앞서 그가 비판한 리카도의 견해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화폐가치가 불변일 때 상품가치의 비교는 이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하였던 각 시기의 勞動의 支出의 비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지출은 가치형태를 가치 자체로 오해하였던 베일리에 있어서 곧 임금소득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가치변동 현상을 실질소득의 변동현상으로 고려하게 된다. 맑스에 따르면²⁹⁾ 그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가치관계의 비교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특징지우는 自立化된 價値로서의 資本價値의 비교를 의미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異시간적 구조내에서의 가치의 自立化는 자기를 증식시키는 가치로서의 자본으로

28) 이런 면에서 라우너(R. Rauner)는 베일리를 높이 평가한다. 그는 베일리가 效用을 제측하는 수단으로써 화폐척도를 도입하고, 효용의 不可測性을 주장하므로 가치비교의 문제에서 物價指數의 접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R. Rauner [29], pp. 34~36 참조), 그러나 베일리가 물가지수적 논리를 제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치개념을 구매력 관계 개념에 따라 고찰함으로써 가치변동 개념이 필연적으로 이 구매력의 변동현상으로 인식됨에 기인한 것이었다.

29) K. Marx [24], Vol. II, p. 110 참조.

현상한다. 이 때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가치는 '同時的으로' 존재하지 않고 '契機的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의 운동으로서 각 단계를 통과하는 순환과정에 놓여 있으므로 상품으로도 화폐로도 끝없이 형태변환하며 가치변동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자립화된 가치로서의 자본은 동질적 시간구조내의 '정지상태의 物'이 아니라 異시간적 구조내의 '운동하는 物'이며, 계속해서 비교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베일리는 이 점을 잘못 인식한 것이라 하겠다.

2. 貨幣의 本質 및 機能

그런데 여기서 화폐의 본질 및 기능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베일리가 화폐를 공통의 명칭을 부여해 주는 '제3의 상품', 즉 교환가치의 自立的인 자태로서 파악하고 그것의 제1차적인 기능이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에 있는 것으로 고찰하면서도, 화폐의 本質을 一般的 等價物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베일리가 고려하는 화폐의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은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 아니라, 단지 화폐로서 고려된 '제3의 상품'의 名目主義的 機能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는 무수히 많은 상품세계에서 배타적으로 분리되어 나와 유일하게 교환가치를 표상해 주는 담당자 내지는 기호로 고정됨으로써, 그 자신이 개별노동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사회적 노동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어떤 상품과도 교환가능한 表象能力을 얻게 된다. 반면, 화폐에서 자신의 가치표현을 발견하는 상품은 자신을 화폐로 전화시킴으로써 비로소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존재규정을 획득하고 가치를 — 비록 잠재적이지만 —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화폐는 이미 그 자신의 체내에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품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상품과 관계를 맺고 가치척도로서의 기능 및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상품으로부터 質的으로 전화한 일반적 등가물로서 존재하게 된다. 베일리는 화폐를 量的인 그리고 外的인 척도로서만 인식할 뿐, 상품으로부터 이와 같이 질적으로 전화해 나온 것으로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화폐는 단지 상품이 교환과정에서 취하는 형태, 즉 가치의 실현형태에 불과한 것인데, 베일리는 그것을 상품가치와 독립하여 외부세계에 존립하는 것으로서만 이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화폐의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을 간과함으로써 불변의 가치척도에 의한 가치의 측정이라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리카도를 올바르게 극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名目的 機能主義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절대가치와 상대가치 간의 접합의 매개물로서 불변의 가치척도를 고려한 말년의 리카도가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베일리는 가치의 測定은 동질적 시간구조내에서 그리고 가치의 變動은 이질적 시간구조내에서 각기 분리적으로 고찰할 문제라고 언급할 때 화폐가 여전히 적절하게 양자의 문제를 수행하는 매개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경우에 화폐의 역할 및 기능을 달리 고찰함에 따른 것이었다. 즉, 前者의 문제를 수행할 경우에 화폐는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後者の 경우에는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 내지는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화폐의 기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貨幣와 그 價値變動』(Money and Vicissitudes in Value [6])이라는 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여기서 화폐를 그 기능적 측면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일반적인 中間商品(general medial commodity)으로서의 화폐이다. 중간상품으로서의 화폐란,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치관계를 現象化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가치척도기능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이며, 가치척도기능과는 달리 異質的 時間을 관련시키는데도 사용된다.

둘째, 일반적인 契約商品(general contract commodity)으로서의 화폐이다. 계약상품으로서의 화폐란,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富 및 소득의 변동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화폐는 異質的 空間에서 운동한다.

마지막으로 비교의 媒介物(medium of comparison)로서의 화폐이다. 이것은 앞의 小節에서도 고찰한 것처럼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폐로서 가치의 변동이나 異시간간 비교가 아닌 측정만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치실현에 요구되는 본질적이며 제1차적인 화폐이다.

베일리에 따르면, 첫째, 둘째 기능에 있어서는 화폐가치의 안정성 및 불변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화폐의 성격이지만, 셋째의 기능에 있어서는 필수적이지 않다.³⁰⁾ 왜냐하면 첫째, 둘째의 기능은 이질적 시간구조내에서 수행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베일리는 분명히 화폐를 상품으로부터 질적으로 전화해 나온 일반적 등가물로 고찰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폐생성의 근거를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에 두고 유통,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이것으로부터 도출되어 나온 副次的인 기능으로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동질화된 가치공간내에서의 가치규정의 역할을 화폐가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화폐를 통한 가치규정 후에야 비로소 이질적 시간내의 가치비교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30) 이 점을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貨幣價値의 변동이 중요한 것은 순전히 화폐가 일반적인 中間商品이고 그 결과 일반적인 契約商品이기 때문이지, 價値尺度이기 때문은 아니다”(S. Bailey [6], p. 43).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논리와는 모순되게 『貨幣와 그 價値變動』에서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른 두 기능에 우선하는 것으로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내용인가?

“화폐가 일반적인 中間商品이라는 사정으로부터, 즉 화폐는 시장에서 다른 상품을 획득하는데 사용된다는 사정으로부터, 화폐는 당연히 일반적인 契約商品으로도 되며, 가치의 尺度로도 된다.”³¹⁾

위의 인용문을 보면, 분명히 화폐의 생성이 무엇보다도 유통수단이라는 특정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그리고 화폐의 제1차적 기능 또한 이것에 있으며, 지불·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은 이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의 논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보게 된 것은 화폐의 가치변동을 측정하는 문제가 문제시되었기 때문이지, 가치척도기능을 부차적으로 인식한데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³²⁾ 물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배일리 역시 그 당시 정치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노동에 의해 규정되는 화폐발생의 內生性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적 견해였던 유통적 측면에서의 요구에 따른 貨幣生成觀을, 말하자면 가치척도기능을 결여한 貨幣生成觀을 불가피하게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로 인해 그는 한편으로는 화폐의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본원적인 기능으로 논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능이 가치변동의 영역에서만 수행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가치규정과 관련한 화폐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에 있음을 주장하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배일리에 의해 제기된 가치척도문제와 화폐의 본질 및 기능문제를 살펴보았다. 그의 문제제기는 가치규정을 관계적 측면에서 고찰하기만 하면, 상품들의 가치표현(측정)의 가능성과 가치의 불변성 간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리카도는 가치의 원인과 척도를 혼동하고 있으며, 리카도가 추구한 불변의 가치척도 자체는 내재적 척도로서 가치 자체의 실체에 관한 논의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가치척도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실체론적 측면으로부터 벗어나 상대적 가치측면, 즉 形態的 측면으로부터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소위 ‘價値實體를 배제한 價値形態論理’를 수립하게 된다. 이는 리카도의 딜레마를 훌륭하게 해소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가치의 外的·形態的 표시만을 추구하고 그 실체 및 생성, 내재적 성질을 論外로 하는 그의 시도는 가치척도기능을 화폐존립의 제1차적 필연성으로 보면서

31) S. Bailey [6], p. 3 참조.

32) 奥山忠信 [38], p. 98 참조.

도 단순한 名目的 機能主義에만 머무르게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상품으로부터의 화폐의 질적 전화과정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간과는 결국 상대적 가치형태, 즉 전개된 가치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내재적 진화과정을 무시하고, 그것들이 동시적으로 상호 공존, 병렬되어 있는 것으로만 인식하게 하여 화폐기능 자체의 내재적 발달과정 역시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화폐의 기능으로서 가치척도로서의 기능,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을 고찰하고 나중의 두 기능들이 전자로부터 도출되어 나옴을 인식하였지만, 이 기능들간의 내재적 발전과정 및 연관성을 다만 가치의 測定次元과 變動次元의 구별이라는 측면으로 해소함으로써 탐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때로는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화폐생성의 근거로서 제시되어 나머지 다른 기능들이 이것으로부터 전개되어 나오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IV. 베일리의 價値論理에 대한 評價

1. '經濟學' 패러다임 系譜上에서의 評價

가치의 본질 및 척도문제를 명목주의 내지는 '형태주의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베일리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가치규정요인을 오직 가치실체만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게 하였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왜냐하면 가치의 본질은 '관계'에 있으며 가치의 측정은 이 '관계'상의 표현방식일 뿐이라고 보게 되면 '관계'를 가능케 한 모든 조건이 자연히 가치의 규정요인 또는 원인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관계'를 가능케 한 조건은 무엇인가? 경제주체들의 욕구가 그 발단이라면 가치규정요인은 경제주체들이 그 물적 대상들에 내린 평가, 즉 효용일 것이다. 분명 베일리는 제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치를 정신적 평가의 산물로 주장함으로써 가치규정요인을 이런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 때문에 그의 논리는 많은 논자들이 주장한 것처럼³³⁾ 제본스의 선구자로, 즉 한계효용학파의 선구자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베일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물적 대상에 매겨진 정신적 평가라는 것은, 고립되어 있는 어떤 소비주체와 물적 대상 간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관계의 성립에 의해 교환이 일어나고 난 후 사후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립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관계의 전제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문제라고 분명히 밝혔었다. 이는 주관적인 정신적 평가를 어떤 양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33) 앞의 주 4 참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명백히 ‘관계’를 가능케 한 조건으로 정신적 평가, 효용이 아닌 객관적인 생산조건들 내지는 필연적인 공급조건들을 고려한다.³⁴⁾ 이러한 점은 그 당시 리카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오히려 리카도의 가치론을 해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던 밀, 맥컬록 등의 ‘속류노동량생산요소론’을 분명하게 생산비론으로 전환,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밀, 맥컬록 등은 리카도의 투하노동에 의해 규정되는 실질가치개념을 순전히 노동비용으로 이해하고, 자본요소와 노동요소를 노동비용으로 환원시켜 가치실체를 노동으로 보는 일원론적 관점을 속류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한 그들의 논리는 누가 봐도 생산비론인데도 억지로 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베일리는 리카도 - J. S. 밀 - 마샬로 이어지는 신고전학파적 ‘경제학’ 패러다임의 추세과정에서 분명히 주요한 계기를 이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베일리가 이렇게 고전학파세계에서 신고전학파세계로 나아가는 주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함은, 그가 객관적인 생산조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생산비 자체만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조건의 차이에 따른 수요, 공급의 영향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상품시장이 完全獨占市場(공급이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음으로써 희소성에 영향을 받는 상품, 즉 리카도의 任意不可增財)인가, 생산비 체증하에 있는 制限的 獨占市場(가격에 대해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한계투입량에 의해 생산비가 결정되는 상품, 즉 농산물 및 광산물)인가, 생산비가 불변의 상태에 있는 完全競爭市場(가격에 대해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공급제한이 없는 상품, 즉 리카도의 任意可增財)인가에 따라 수요, 공급의 작용이 달라 나타남을 인식하고 이 작용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말하자면 ‘需·給의 작용을 기초로 한 생산비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가 보기에 생산비개념은 자본가가 처해 있는 市場의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이 자본가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完全獨占商品의 경우 가치의 원천은 희소성에 있으므로 상품의 가치가 需要에 의해, 制限的 獨占商品인 비용체증재의 경우 가치의 원천은 공급조건에 있으므로 상품의 가치는 生産費에 의해, 그리고 完全競爭商品인 비용불변재의 경우 그것은 資本의 支出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밀, 맥컬록 그리고 토렌스의 주장처럼 상품의 가치는 오로지 노동이나 자본, 즉 어느 한 요인

34) 가치의 규정요인에 관한 베일리의 이러한 독특한 문제의식은 앞서 논했던 그의 ‘客觀에 기초한 主觀主義的 歸納方法論’에 의거하고 있음에 따른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한편 그는 “우리는 知識을 얻을 때, 현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원리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론이다”(S. Bailey [5], p. 179)라고 말함으로써 현상으로부터 본질로의 환원이라는 소위 맑스가 말하는 下向法의 方法論에도 의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형태주의적 시각’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치의 양적 크기 문제를 분석하고 그런 후 가치의 원인문제를 다루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시장의 상태에 따른 수요, 공급의 작용에 기초한 여러 원인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것이다. 원인론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러한 그의 주장은 ‘多元論的 生産費論’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가치의 규정요인을 일원론적으로 볼 것이냐, 다원론적으로 볼 것이냐의 단순한 그 당시 논쟁구도의 한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샬리안적 전통의 한계를 이루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베일리의 이 논의는 J. S. 밀에 가서 더욱 체계화되어 베일리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던 수요와 가격, 그리고 생산비와 산출량 간의 기능적 연관성이 밀에 의해 더욱 분명히 되었을 뿐만 아니라(이에 대해서는 J. S. 밀 [25]의 제3권 제4장을 참조하라),³⁵⁾ 마샬에 가서는 리카도, 베일리, J. S. 밀 등이 주장한 상품 및 시장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상품가격결정논리가 시간을 도입한, 즉 短期 및 長期에 따른 수요·공급의 현상으로 설명되고, 궁극적으로 효용 측면에 중점을 두는 단기이론보다는 생산비 측면을 중시하는 장기이론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³⁶⁾

이상 가치규정요인에 관한 베일리의 논의를 살펴보면, 제본스의 선구자라기보다는 마샬의 선구자로 볼 수 있는 면이 분명히 고찰됨으로써 그를 신고전파적 ‘경제학’ 패러다임으로의 발전과정의 추세 속에 위치시킬 수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35) 이런 면에서 바라와지는 J. S. 밀이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에 기초한 가치법칙’을 ‘생산비론에 기초한 가치법칙’으로 새롭게 정립함에 있어서 베일리의 영향은 아주 지대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K. Bharadwaj [7]). 그러나 이에 대해 드 비보는 J. S. 밀이 베일리의 영향을 받아 상품 및 시장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과 수요와의 연관성, 그리고 생산비와 산출량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한 것은 J. S. 밀이고 베일리의 경우는 거의 고찰하지 않고 있으므로 베일리의 J. S. 밀에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에 따라 그는 J. S. 밀을 베일리를 제외한 밀, 맥켈록을 계승하는 리카디안으로 봐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G. de Vivo [13], p. 68) 그러나 반면 바라와지는 홀랜더처럼 J. S. 밀을 베일리와 동일한 한 이론적 추세로 분류하고 마샬의 직접적인 선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36) 그래서 마샬은 스스로 자신의 이론적 전통이 리카도, 베일리, J. S. 밀 등의 리카도적 전통에서 있다고 주장했었다(A. Marshall [21], pp. 818~821). 그러나 이 경우 마샬이 주장하는 리카도적 경제분석이란 베일리를 거쳐 J. S. 밀에 의해 정식화된 이론이지, 리카도 자신의 정치경제학체계는 결코 아님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 후 마샬의 이러한 주장은 롤(E. Roll [30], p. 369), 홀랜더(S. Hollander [16], p. 230), 바라와지(K. Bharadwaj [7])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데, 롤과 홀랜더, 바라와지는 베일리는 교환가치의 원천을 투하노동량으로만 보는 리카도의 과도한 단순이론을 일반화하고 확장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비용제중, 희소성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가치의 원인을 多元化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홀랜더는 이제까지 베일리의 리카도에 대한 비판은 과도하게 평가되어 왔으며, 가치원천 문제에 관한 한 베일리는 리카도의 직선적인 계승자로 봐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마샬과 롤, 홀랜더, 바라와지 등의 평가는 베일리를 신고전파적 흐름의 방향에 설정해 놓는 것으로서 리카도와와의 관계를 직선적인 繼承의 側面에서 고찰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註 4에서 본 것처럼 셀리그만, 보울리, 라우너, 오브라이언 등은 베일리를 限界革命의 선구자로 보므로 그를 신고전파적 추세의 한 흐름으로 놓으면서도, 리카도에 대립되는 그 당시 ‘反古典派的 非리카디안’의 그룹으로 설정하여 리카도와와의 관계를 斷絶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과연 배일리의 가치논리의 의의는 이러한 측면에만 있는 것일까? 지식사의 발전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논리나 이론은 해석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어느 한 부분만이 과도하게 부각되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이론이나 논리와 의 연관성 속에서 그것이 핵심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관점을 발견하여 평가를 내려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배일리의 가치논리는 리카도의 가치론을 일반화하고 확장하기 보다는 리카도 가치론에 대한 反證의 論理의 색채를 띠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논리는 논리적인 정합성이 부족한 리카도의 이론을 안정적인 논리체계로 완성시키기 보다는 형태주의적 측면을 무시한 리카도의 시각을 비판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가치문제를 고찰할 것을 무엇보다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맑스는 배일리의 이론적 의의를 이러한 점에서 분명하게 고찰하였다. 그가 보기에 정치경제학논리체계가 리카도에 와서 이론적 딜레마에 빠진 것은, 자본주의 경제구조 및 경제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심층운동과 표층운동 간의 상호 연관성을 무시하고 오직 실체주의에 빠짐으로써 자본주의 고유의 사회법칙을 자연주의적 경향으로 설명하게 된 데 있었다. 따라서 배일리의 문제제기는 고전학파 가치논리를 극복하는데 주요한 하나의 인식론적 축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가치의 실체규정과 형태규정 간의 변증법적 연관성 및 그 접합의 관계가 수립되어야 정치경제학적인 가치논리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맑스의 입장에서 볼 때 배일리의 가치논리는 당연히 많은 단순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맑스는 리카도로부터는 가치실체의 논리를, 배일리로부터는 가치형태의 논리를 참고하면서 독자적인 가치논리를 정립하게 된다. 이 경우 그에게 있어서 배일리에 의한 리카도의 비판 및 이론적 주장은 우선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주요한 문제였다.

2. 맑스의 批判 및 評價

전절에서 본 배일리의 리카도 비판은 다음 세 가지 논리로 요약되는 것이었다.

첫째, 가치란 적극적·내재적·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두 상품이 교환가능한 상품으로서 서로 대면하는 상대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가치는 이렇게 상대적 관계이므로 그것의 外的 측정은 한 상품 사용가치량의 또 다른 사용가치량으로의 표현, 즉 교환비율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자면 두 상품, x 량의 상품 A 와 y 량의 상품 B 가 교환관계를 맺는 그 자체로 밖에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치표현(측정) 또한 이 양적 관계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교환관계내에서 현상하는 가치의 크기 可變的이며, 가치량이 불변인 불변의 가치척도란 존재할 수 없다.

셋째, 어떤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에 포함된 노동량이 아니라 다른 상품과의

관계로 규정되기 때문에, 관계(비교)되는 상품의 종류 및 數에 따라 무수히 많은 가치표현들을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3의 상품', 즉 화폐와의 관계에서는 가치의 독립화된 자태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화폐는 두 상품으로 하여금 교환 가능한 共通의 單位(가격)를 부여해 주는 교환가치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카도의 주장과는 달리 화폐는 가치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 척도인 화폐가치의 불변성은 가치척도의 불변성으로서가 아니라, 가격의 도량표준내지는 지불수단으로서의 불변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베일리의 리카도 비판은 가치개념을 상품들간 교환관계 속에서, 즉 자본주의의 현실경제과정을 기초로 하여 파악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논리적인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맑스에 따르면 베일리는 리카도가 추구한 불변의 가치척도를 가치의 내재적 척도, 즉 가치 자체의 개념 및 본질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인식이었다. 베일리 역시 맑스처럼 '불변의'라는 말이 표현하는 것은 가치량을 측정할 수 있는 뉴메르로서의 性質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구성하는 실체, 본질 자체로 이해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리카도가 상이한 상품들을 '제3자'인 화폐로 표현하는 가치척도(형태) 문제와 가치의 내재적 척도(가치실체) 문제를 혼동하고 있었음을 자신의 이론을 통하여 명백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일리는 교환가치가 상품들의 量的 교환비율들로 표시되는 가장 표면적인 형태만을, 다시 말하자면 가치의 형태규정성만을 고찰할 뿐 형태규정성을 조절하는 그 이면의 심층작용에 대해서는 분석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상술한 그의 리카도 비판은 가치분석의 한 측면만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맑스의 비판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리카도에 대한 베일리의 첫 번째 비판에 대해 맑스는, 그가 리카도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리카도는 불변의 가치척도 자체가 가치의 실체 — 리카도와 베일리에 있어서는 절대적 가치 — 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베일리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적 투하노동량에 의해 가치가 규정된다고 봄으로써 相對的 價値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리카도는 "인간노동의 단순한 상대적 표현으로서의 物的 존재의 相對性"³⁷⁾을 고려함으로써 처음부터 가치의 상대적 측면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리카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만 상대적 노동량비율 = 상대적 상품량비율로 인식함으로써 노동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상품가치를 표상할 수 있다고 고려한 데 있는 것이었다.³⁸⁾ 베일리는 오히려 x 량의 상품 A 가 y 량의 상품 B 와 교환된다고 할 때 이 상대적 관계의 근원, 즉 이 교환관계의 원인을 탐구하지

37) K. Marx [24], Vol. I, p. 98 참조.

38) 리카도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리카도派 社會主義者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 勞動貨幣論을 주장하게 한다. 맑스에 의한 가치척도로서의 노동화폐에 대한 문제점은 『政治經濟學批判要綱』에서 잘 지적되고 있다(K. Marx [23], pp. 139~140).

않은 반면에, 리카도는 노동이 상이한 상품들을 동등하게(교환하게) 만드는 공통의 단위임을 그리고 상품의 실체, 가치의 내적 원인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리카도는 다만 노동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형태적 전제하에서인지를 분석하지 못하고, 사용가치로 표현되는 노동형태와 교환가치로 표현되는 노동형태를 구분하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맑스는 勞動量이라는 것은 가치를 갖지 않으며 상품도 아니며 단지 상품을 가치로 전화시키는 單位일 뿐이라고 하며, 양자에 대한 兩面批判의 의미로서 가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 상품의 價値란, 그 상품이 그것에 의해서 다른 상품과 구별되고 그것과 관계될 수 있는 그 무엇일 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사용가치로서의 그 자신의 존재로부터 구별하는 하나의 性質이다.”³⁹⁾

즉, 베일리에 대해서는 상품들간 교환관계라는 외관의 배후에는 이미 상품들이 가치로서 상정되고 있어야 하며, 리카도에 대해서는 가치는 사실상 교환을 내포한 개념이므로 교환관계를 매개로 노동이 상품을 가치로 전화시키는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兩面批判하는 것이다.

다음 베일리의 리카도에 대한 두 번째 비판에 대해 맑스는, 상품의 가치는 그 자신의 사용가치 자체로서 표현되지 않으며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관계내에서만 현상함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베일리를 높이 평가한다. 상품이 對自的 關係에 놓여 있을 때에만 가치가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상품 자신의 사용가치와 가치가 서로 구별되는 존재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맑스는 베일리의 이와 같은, 그 상품 자신의 사용가치와 구별되어 교환관계내에서 ‘표현되는’ 가치 자체의 명목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형태규정성 측면의 이해라고 하며 그와 인식을 같이 한다.⁴⁰⁾

그러나 한 상품의 가치가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로 표현된다는 것은 양자가 등가관계에 있음을 전제한 가운데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상품들은 서로 質的으로 다른 사용가치로서는 등가되거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질적으로 동일하면서도 다만 양적으로만 비교될 수 있는 가치로서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과와 책이 교환되는 것은 사과라는 사용가치로서 또는 책이라는 사용가치로서가 아니라, 이 사용가치 형태와 독립해 있는 等價物, 즉 價値物로서이다. 그러므로 감지할 수 없는 가치량 측정에 불변의 가치척도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치의 상대적 표현이 더 타당한 인식방법이라 해서 그것 때문에 전제가 되는 가치개념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맑스는 이 점을 의식하고 “교환비율이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교환비율을 규정하는 것이다”⁴¹⁾라고 분명히 주장하게 된다.

39) K. Marx [42], p. 130 참조.

40) 有江大介 [41], p. 41 참조.

41) K. Marx [24], Vol. I, p. 78 참조.

상품들이 이렇게 가치로서만 오직 관계될 수 있다는 것은 가치 자체가 사회적 크기로서 규정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상품가치에 지출된 노동이 사적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일정한 크기로서 지출된 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맑스는 교환가치의 상대성을(사회적) 노동과의 연관 없이 상품들만의 우연한 교환비율로, 또는 상품형태의 고려 없이 단지 생산에서 지출된 상대적 투하노동량 비율만으로 고찰하는 베일리와 리카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리카도는 가치실체로서의 노동이 취하는 특별한 형태, 즉 가치형태를 결코 연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가치크기만을, 즉 상품들의 가치크기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추상적이며 일반적이고 이러한 형태에서 사회적인 노동의 양만을 탐구했다. 반면, 베일리는 가치개념의 상대성은 모든 상품들이 교환 가치인 한 사회적 노동시간의 상대적 표현일 따름이며, 모든 상품들의 상대성은 결코 상품들이 상호 교환되는 비율에만 있지 않고 그 실체인 사회적 노동에 대한 모든 교환가치의 비율에 있음을 인식했어야 했다.”⁴²⁾

마지막으로 화폐를 상품 교환가치의 독립된 자태로 인식하고 모든 상품들의 가치량 척도로 규정하는 베일리의 논의는, 확실히 가치측정 문제를 상품분석 측면 및 상품-화폐세계 속에서 파악하지 못한 리카도의 결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맑스에 따르면 베일리는 화폐를 外的인 척도, 量的인 척도로만 인식함으로써 명목주의적(nominalistic)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베일리는 상품가치가 화폐로 표현되는 것의 의미를, 모든 상품들이 유일한 하나의 사용가치 형태로 표현되고 따라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량을 측정하는 척도가 유일한 가치형태인 화폐에 부여된 것이라는 의미로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를 측정(척도)한다는 것은 리카도의 주장처럼, 측정되어야 할 物이 측정하는 物과 동일한 종류의 단위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가치를 형성하고 측정가능케 해 주는 공통의 단위는 베일리의 주장처럼 단지 화폐와의 관계에 의해 획득된 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일정한 크기로 존재하는 사적 노동량이다. 상품을 價値物로 전화시키려면 사적 노동은 外化(양도)에 의해 사회적 노동으로 표현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사적 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서 승인되고 있어야 하는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곧 상품을 화폐로 표시해야 하는 필연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상품가치가 화폐로 표현된다는 것의 의미는, 상술한 베일리의 고찰외에 상품 모두가 사회적·일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추상노동의 구체화로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함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베일리는 이 측면을 간과했던 것이다.

42) K. Marx [22], Vol. II, p. 172 참조.

파악함으로써 표상과 무관한 그리고 표층으로 발전해 나오지 않는 實體만을 고려하였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하여 맑스는 베일리를 비판할 당시 리카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리카도가 고려한 것은 가치로서 구체화되는 자기자신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대적 노동량일 뿐이다. 그는 상품내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의화(양도)되는 사적 노동으로서, 말하자면 상이한 개별노동은 동등한 사회적 노동으로, 즉 모든 사용가치들과 표시가능하며 교환가능한 것으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간과했다. 따라서 그는(인용자-베일리와 마찬가지로) 교환가치의 화폐로의 표시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質的인 측면을 설명하지 못했다.”⁴⁴⁾

이상과 같이 우리는 베일리의 리카도에 대한 비판과 그것에 대한 맑스의 언급을 통해 맑스가 베일리와 리카도를 어떤 측면에서 兩面批判을 하고 베일리를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베일리에 대해서는 가치실체를 결여한 가치의 표면적 形態規定性만이 그리고 리카도에 대해서는 가치를 규정하는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형태가 간과되고 노동이라는 實體規定性만이 고려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兩面批判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품가치분석에 대해 베일리는 가치실체를 무시한 가치형태만을, 리카도는 가치형태를 무시한 가치실체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⁵⁾

따라서 이제 ‘政治經濟學批判의 經濟學’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체계를 하나의 비판적 자료로 삼을(계승의 측면)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극복의 대상(단절의 측면)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었던 맑스에게는, 상품가치분석에 있어서 가치의 실체규정과 형태규정을 구별하고 통일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는 베일리와 리카도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범주는 표상(양적 크기 및 척도)을 전제한 실체이면서 구체적 표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실체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가치범주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추상적인 간노동이라는 범주이다. 이 범주의 제시에 의해 그는 內在的·外在的 尺度를 서로 구별되는 불연속적 범주로 생각하고 가치크기의 척도로서 오직 노동시간만을 고려

44) K. Marx [42], p. 193 참조.

45) 그래서 이런 면에서 루빈(I. I. Rubin [31], p. 108)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맑스는 『資本論』에서 우선 베일리 이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교환가치개념은 공통의 요인인 가치개념을 파악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商品章 제1절의 주제를 ‘교환가치’로부터 ‘가치’로 그리고 ‘가치’로부터 ‘노동’으로의 분석과정으로 놓고, 제2절은 바로 이러한 제1절의 완성으로서 실체인 노동개념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는 것으로 놓으며 그 과정에서 고전학과 가치분석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한편 베일리에 대비된 고전학파의 문제점이 보다 선명해짐으로써 제3절에서는 가치의 실체로부터 그 사회적 형태인 가치형태로 전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는 '리카도적 사고방식'과 외재적 척도를 통해 내재적 척도의 의미가 파악된다고 보는 '베일리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게 된다.⁴⁶⁾ 그리하여 가치실체와 가치형태, 가치와 가격, 노동과 화폐는 서로 내적 연관성이 있는 범주이며 상호간에 내용과 형식의 변증법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임을 보여 주게 된다.

V. 結 論

베일리는 富의 본질 및 가치의 실체를 탐구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과제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일반적인 정치경제학자들과는 다르게 경험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日常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과제여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이에 따라 그는 아직도 리카도 정치경제학논리체계가 위세를 떨치고 있던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체계에 정면 도전하는, 나아가서는 그 이론적 취약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도 하는 반증의 논리체계로서의 가치논리를 제시하게 되었다. 그것은 가치문제를 절대주의적·실체주의적 시각이 아닌 상대주의적·형태주의적 시각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즉, 가치개념을 교환과 구매가 이루어지는 '관계'의 차원에서 보며 가치의 측정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품들간의 가치표현방식으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이런 상대주의적·형태주의적 관점에서 가치의 본질 및 가치의 측정문제를 고찰하게 되면 실질가치범주는 사라지고 모든 가치범주는 名目主義的 차원에서만 파악되어진다. 그리하여 불변의 가치 내지는 불변의 가치척도라는 추상적인 관념은 불필요하게 되고 리카도의 문제 자체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베일리의 이러한 주장은 상품가치의 문제를 교환관계의 전제 속에서 그리고 화폐관계와의 전제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논리로서 그 당시 리카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들이 범하고 있었던 오류, 즉 '화폐베일관'에 따른 가치의 형태규정성의 무시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으로 보는 그 당시 고전학파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이 본질적 기능임을 강조하는, 그리하여 리카도가 혼동하였던 척도로서의 화폐가치의 불변성과 가치척도의 불변성을 분명히 구분해 주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리카도 가치논리의 부족한 면을 검증해 보이는 주요한 지적이었다.

46) 완전히 정확히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리카도적 사고방식'은 오늘날 가치문제를 스타피안적·무노동적 접근방식에 따라 고찰하는 집단에, '베일리적 사고방식'은 추상노동적·이단적 접근방식에 따라 고찰하는 집단에 대응시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인 인식론에서 보았을 때 그의 가치논리는 극단적인 형태주의 내지는 명목주의에 경도된 것이어서 리카도처럼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본질을 설명해 내지는 못했다. 즉, 리카도처럼 자본주의 고유의 경제법칙을 설명하는 기초로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그가 실질가치=불변의 가치, 명목가치=가변의 가치로 이해하고 불변의 가치란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가치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한데서 잘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논리에 따르면 상품의 가치규정요인은 관계되는 상품이 생산되는 조건 및 시장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리카도처럼 가치논리를 분배법칙 및 축적법칙의 토대로 놓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정치경제학적인 가치논리의 완성에 있어서 베일리의 가치논리는 리카도의 가치논리를 확장, 일반화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反證하는 것으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었는데, 맑스는 이 점을 통찰하게 되었다. 그는 자본주의 고유의 경제구조를 설명하려면 노동-상품-화폐의 內的·質的 연관성을 가치논리에 따라 체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리카도로부터는 가치실체논리를, 베일리로부터는 가치형태논리를 참조하여 고전학파를 극복하는 주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베일리는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의 맑스 정치경제학으로의 발전과정에서 주요한 한 단계를 이룬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베일리의 이러한 의의는 한때 만연했던 리카도적 해석으로부터 맑스를 구제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재부활된데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한편, 베일리는 비록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신고전파적 '경제학' 패러다임의 발전 과정에서도 한 단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의 가치논리는 시장조건에 따른 수요, 공급의 영향도 고려하는 생산비론으로서 J. S. 밀을 거쳐 마살로 이어지는 마살리안적 이론형성의 한 구성요소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몇몇 논자들에 의해 그를 제본스의 선구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의 가치논리는 대체로 한계효용학설의 계보보다는 분명히 영국 고전학과 경제학의 한 전통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베일리의 이론적 의의가 밀로 하여금 생산비론을 정립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데 있다고 보기보다는, 리카도 가치논리를 '형태주의적 시각'에서 비판한데 있다고 보므로 그의 가치논리에 대한 이해 및 평가를 정치경제학 발전계보상에서 살펴보았다. 이 점의 타당성은 그를 마살리안적 이론형성의 전통 속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후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權英卿, “리카도 政治經濟學體系와 不變의 價値尺度”, 『産業과 經營』, 제28권, 제2호, 1991.
2. ———, “리카도 價値論에 대한 토렌스의 批判”, 『經濟理論과 韓國經濟』(崔虎鎮博士講壇50周年紀念論文集), 박영사, 1993.
3. 프리츠프 카프라, 『탁월한 지혜』, 홍동선 譯, 범양사출판부, 1990.
4. Arthur, C., “Dialectic of the Value-Form,” in *Value: The Representation of Labor in Capitalism*, CSE Books, 1979.
5. Bailey, S., *A Critical Dissertation on the Nature, Measure, and Causes of Value; Chiefly in Reference to the Writings Mr. Ricardo and His Followers*, R. Hunter, 1825.
6. ———, *Money and it's Vicissitudes in Value*, Effingham Wilson, 1837.
7. Bharadwaj, K., “The Subversion of Classical Analysis: Alfred Marshall's Early Writings on Valu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2, 1978.
8. Blaug, M., *Ricardian Economics*, New Heaven, 1958.
9. Boss, H., *Theories of Surplus and Transfer: Parasites and Producers in Economic Thought*, Unwin Hyman, 1990.
10. Bowley, M., *N. Senior and The Classical Economics*, George Allen & Unwin, Ltd., 1937.
11. ———, *Studies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eory before 1870*, Macmillan, 1973.
12. Cannan, E., *A History of The Theorie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 English Political Economy from 1776 to 1848*, 1st edition 1893, reprinted of Economic Classics, Augustus M. Kelley Publishers, 1967.
13. de Vivo, G., “John Stuart Mill in Valu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5, 1981.
14. Dobb, M., *Theories of Value and Distribution since Adam Smith—Ideology and Theory—*, Cambridge Univ. Press, 1973.
15. Gordon, B., “Criticism of Ricardian Views on Value and Distribution in the British Periodicals, 1820~1850,”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1, No. 2, 1969.

16. Hollander, S., "The Reception of Ricardian Economics, *Oxford Economic Papers*, Vol. XXIX, July, 1977.
17. ———, *Classical Economics*, Basil Blackwell, 1987.
18. Malthus, T. R.,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Considered with a View to their Practical Application*, 1820.
19. ———, *The Measure of Value Stated and Illustrated, with an Application in the Value of the English Currency since in 1790*, 1823.
20. ———, *Definitions in Political Economy*, 1827, rpt., Helley & Millman, New York, 1954.
21. Marshall, A.,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ition, London, 1920.
22. Marx, K., *Theories of Surplus Value*, Vol. I and Vol. II 1971, Vol. III, 1972, Moscow, Progress Published
23. ———, *Grundrisse: Outline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intage Books, 1973.
24. ———, *Das Kapital*, Vol. I, 1st edition 1867, 3rd edition, Vol. I, II, III, Dietz Verlag, Berlin, 1979.
25. Mill, J. 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rpt., Toronto Univ. Press, 1977.
26. Oakley, A., *Marx'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 Intellecture Sources and Evolution*, Vol. I, II, Routledge & Kegan Paul, 1984.
27. O'Brien, D. P., *The Classical Economists*, Oxford Univ. Press, 1975.
28. ———, "Classical Reassessments," ed. by W. O. Thweatt, in *Classical Political Econom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8.
29. Rauner, R., *Samuel Baliey and the Classical Theory of Value*, Havard Univ. Press, 1961.
30. Roll, E.,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Farber, London, 1960.
31. Rubin, I. I., *Essays on Marx's Theory of Value*, Black & Red, 1972.
32. ———,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Trans. & ed. by D. Filtzer, Ink Links Ltd., 1979.
33. Seligman, E., "On Some Neglected British Economists," *Economic Journal*, Vol. 13, 1903.
34. Shoul, B., "Karl Marx's Solutions to some Theoretical Problems of Classical Economics," *Science & Society*, Vol. 31, 1967.
35. Sowell, T., "Samuel Bailey Revisited," *Economica*, Vol. 37, 1970.
36. Therborn, G., "The Economic Theorists of Capitalism," *New Left Review*, No.

87, 1974.

37. 西岡幹雄, 「サミュエルペイリーの 經濟理論—特に價值論を中心にして」, 『經濟學論叢』(同志社大學), Vol. 31, No. 1, 2, 1982.
38. 奥山忠信, 『貨幣理論の形成と展開: 價值形態論の理論史的 考察』, 社會評論社, 1991.
39. 玉野井芳郎, 『リカアドから マルクスへ—古典派經濟學批判史』, 新評論社, 1954.
40. 有江大介, 「價值ノミナリズムとマルクス—マルクスによるペイリー批判の意義」, 『土地制度史學』, No. 103, 1984.
41. 齊藤日出治, 「重商主義の貨幣認識と勞動貨幣論批判—マルクス價值形態論の生成」, 『經濟科學』(名古屋大), Vol. 26, No. 1, 1978.
42. 資本論草稿集翻譯委員會 譯, 『マルクス 資本論草稿集』(MEGT)—1861~1863年の 經濟學草稿 第7卷—, 大月書店, 東京, 1982.